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삶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 돌봄과 사역을 오가며 때로는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왓파르 현지 사역자들

처음 왓파르 사역을 시작할 때 현지인 사역자들의 훈련과 지도자 양성에 힘썼는데, 주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번역을 감당하는 다섯 명의 훈련생들, 왓파르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종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성경활용 사역자들, 문해 사역자로 훈련받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등 한 사람 한사람 주께서 부르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저희가 형편상 선교지를 떠나 있을 때도 자신들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고 왓파르와 파푸아뉴기니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사역 일정

최선교사는 사회언어학 논문을 잘 마무리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19일 선교지로 들어가서 문해사역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왓파르 문해 사역 계획을 세우고 교육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선교사는 현재 줌으로 누가복음 어드바이저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순부터는 선교지로 들어가 두 달 동안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왓파르 복음화 총회에서 다른 모든 교단들과 함께 성경번역 위원회 중심으로 교회 동원과 내년 사역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선하신 인도를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10월 중순 마레 마을에서 있을 글쓰기 워크숍 (Writer's Workshop)을 통해 왓파르어 읽기, 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생기도록, 문해 사역을 감당할 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2. 최선교사가 왓파르 문해 사역 계획을 잘 수립하고 필요한 학습 자료와 교재 개발에 있어 돕는 손길과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3. 정선교사와 번역자들과의 누가복음 어드바이저 점검과 요한복음 2차 팀 점검을 감당할 때 지혜와 인내, 기쁨을 더해 주시도록, 번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늘 건강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4. 선교지를 오갈 때 늘 강건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깨어 늘 기도에 힘쓰도록, 정선교사 모친의 건강이 계속 호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8일

정일재/최선옥 드림



7월 성경번역위원회 모임

